

새정부 첫 임시국회 오늘 개회... '협치' 실현될까

내각 청문회·추경예산·정부 조직개편 등 쟁점

공수처 신설 한국당 반대 '3대 개혁' 뇌관으로

6월 임시국회가 29일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인 만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간 '협치'의 가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동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사청문회가 여야 협치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상태다.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함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일자리 추경'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인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애꿎은 형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

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윤곽을 드러낸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여야가 힘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8일 "과거에 보면

개혁입법을 한 쪽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곤 했다"며 "대선 때 공동으로 공약했던 과제부터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생 살리기보다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법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법안 이전에 추경 편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연합뉴스



각당이 인사하는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2기 원내대표단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참석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황, 한반도 평화 큰 관심 한국 국민과 새정부에 기대”

김희중 특사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70·사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대주교·광주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특사단의 의견을 메모로까지 남기며 한반도 평화와 새 정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김 대주교는 이날 오후 6박 7일의 특사단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저희끼리는 만족스럽게 소임을 마쳤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교황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한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외교상 구체적으로 바힐 수는 없지만 교황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새 정부에 기도 등을 부탁하자 측근 비서를 불러 관련 내용을 메모하라고 했다”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주교는 교황청이 문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축하사절단을 보내고 싶다는 의견을 사절단에 피력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특사단은 친서와 면담 등을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교황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기도 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목포 대양산단 달린다

위지트에너지 대상 원스톱 취업 서비스

다음달 1일 조선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전남도가 30일 목포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주)위지트에너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를 열며 내 번째로 운영한다. (주)위지트에너지는 디지털 전기 계량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공장을 목포 대양산단에 신축해 6월 중 가동할 계획이며 전기전자, 단순조립 등에 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가 시작한 청년 취업 지원시책의 하나다. 취업을 바라는 청년들이 구인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탐방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다.

지난 2016년 11차례 운영해 32개사에 110명, 올해 3차례 운영해 9개사에 28명이 취업했다.

전남도는 또 조선업 관련 기업인 (주)은적산업 등 4개 업체가 용접취부, 전기의장, 파이프베관 등에 필요한 인력 20여 명의 채용을 희망함에 따라 조선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6월 1일 오후 2시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강효석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앞으로도 구인 수요가 있는 유망기업들을 계속 발굴해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취업을 바라는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전남남도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http://job.jeonnam.go.kr/)의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일정에 따라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회취약계층 손쉽게 전기요금 등 감면 받는다

전남도, 사이트 ‘복지로’ 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환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들이 앞으로는 복지부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전기요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전기가스 등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월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대상별, 감면요금 내용별로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온라인신청은 인터넷상에서 자격 확인이 가능해 추가로 별도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신청 결과는 복지로서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감면 제공기관별로 처리 기한이 달라 신청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면 더 빠르게 감면 내용과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대상은 TV 수신료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이다.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여름철 2만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50%, 도시가스요금은 취사용은 420~1680원, 난방용은 1650~2만4000원, 지역난방요금은 5000~1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1천436가구를 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로 발굴해 1만 7천942가구에 감면 지원을 제공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산구 박삼용 의원 송산유원지 보행교 예산 10억 확보

광주 기초의원 중 유일 한국당 소속

광주지역 기초의원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삼용 광산구의회회원의 대정부 예산 활동 성과가 화제다.

28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박삼용 광산구의회 부의장은 현재 1차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 개통한 송산유원지 보행교 예산을 단독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확보했다.

4선 기초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부의장은 지난 2013년 당시 송산유원지 보행교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해당 부처 장관과 당시 여당 지도부 등을 수차례 만나 안전보행교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 끝에 2년동안 총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박 부의장은 여당 지도부를 접촉하기 위해 개인생활을 포기하고 주말에도 서울을 오르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의장은 “집중호우 때면 송산유원지의 진·출입로가 넘쳐 실족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정부를 상대로 예산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이번 보행교 준공으로 광산구민은 물론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송산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송산유원지 보행교는 지난 26~28일 열린 광산 우리밀 축제 기간 중 임시 개통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에서 만나는

세계 최고의 거리극

2017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
ACC GWANGJU FRINGE INTERNATIONAL

2017.6.2.(금) ~ 6.4.(일) 오후 3시~오후 10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및 금남로 일원

주최 | ACC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문의 T. 062) 601-4917 www.fringeinternational.kr

유쾌한 토요일문화나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매주 토요일
금남로 및 5·18민주광장 일원
2017년 4월~12월 오후 2시~7시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광주문화재단